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마음공부, 노예 벗어나 자유인 되는 길

기복으로 믿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삶 자체에 진리가 있고 과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으로 형상을 세워 놓고 그걸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해도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 말하자면 참자기를 믿는 게 진짜 불자다운 태도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이상스럽다고 하고 또는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따로 따로 해 놓고 거기에 다 믿고 기대는 게 옳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쉬우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가령 몸이 아픈데 너 자신을 믿어라 하면 이게 영 실감이 가지 않고 그 대신에

이 보이는데도 다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참나도 쉬지 않고 변화면서, 나무며 화해서 돌아가고 있으니 어느 때를 꼭 잡아서 이거다! 할 게 없더라, 그러니 무엇을 고정되게 말할 것이냐 한 뜻이지요. 참으로 너무 빨리 참나를 다루며 돌아가니까 '공'이라 했던 겁니다. 주인공도 그래서 고정된 게 아니라 이름인 것입니다. 참나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합쳐서 돌아가고 무공무진으로 진화하며 가는데 이름이 아니라고하면 달리 고정된 무엇을 말할 수가 없지요.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도 그렇게 돌아가는 근본을 알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나, 너는 너로 고정된게 있다면 어찌 둘이 아니라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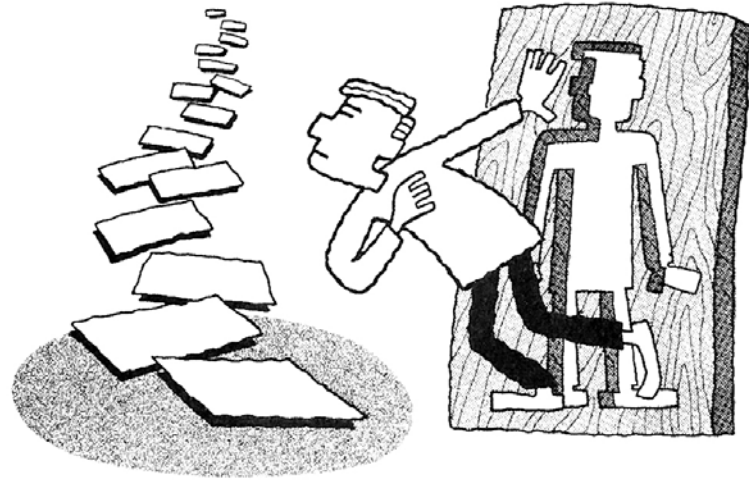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릴 일이라면 백일 지나고는 어찌 합니까? 백일만 살고 말건가요?
 이 지구가, 아니 우주가 백일만 돌아가고 그만 안 돌아가나요?
 우리는 지금 단 일초도 머무르지 않고 항상 불을 밝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인들이 따로 있고 기도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끊어서 부스럼을 만들 일이 됩니까? 끊어서 부스럼 만들고 없는 미신을 만들게 됩니까?
 마음을 그렇게 세게 할 때면 미신이 꼬여들고 팔자운명이 어떻다는 소리를 하게 되지요. 저절로 그렇게 되질 않겠습니까?
 그런거 실은 불을 사이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재빨리 돌아가는데 어디 먼지라도 붙을 거예요 있겠습니까? 그와같이 티끌 하나 붙을 사이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어찌나 빨리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미생물에서부터 역겹을 거쳐 나오면서 지은 업이라도 이 도리를 알면 참나에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100%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 세상이 대외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결성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왕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더구나 수 억겁을 거쳐 이렇게까지 진화했으니까요.
 그런데 예까지 진화하도록 나를 형성시킨 그 근본,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바깥 형상만 찾으려 다니고 고귀하다는 이름 찾으며 다니고 큰 돈으로 공덕을 표시해야만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부적이다, 무슨 운명감정이다 해서 찾아 다니야 한대서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안되고 자기의 고귀한 삶을 그렇게 값싸게 허비해도 안 될 일입니다.
 참으로 뼈에 사무치는 눈물, 그 눈물 한방울이 피 한방울이었는데 어떻게 인간으로까지 태어나서 자기의 생명과 삶을 그런 것하고 바꿔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도매공으로 말이죠.
 그래서 화두를 들더라도 너 자신 태어난 것, 자기를 화두로 삼으라고 했죠.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서 모습을 바꾸

“운명·미신·부적에 의지하는 건 자기 고귀한 생명을 끊어서 부스럼 만들고 고귀한 삶 허비”

약사여래를 찾고 거기에 매달리라고 하면 한결 쉬워 보인다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용왕님 찾고 산신을 찾고... 어디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되는데 말입니다. 그거 자칫하면 정신병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비유하자면 빈 집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빈 집이 되니까 영계에서 들락날락해도 자신은 어찌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병자가 되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최초로 한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나로부터 벌어졌고 나로부터 생겼으니 믿기로 한다면 믿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너 자신을 믿고 진리를 믿으라고 하셨지 다른 걸 믿으라고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도 참자기를 믿고 둘도 참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심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체만법이 자기로부터 들고 난다는 이 진리를 외면하면 어느 때에 참자기의 맛을 보겠습니까?
 일찍이 말씀해 놓으시기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만물 어느 것을 돌려 보아도 열이면 열

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볼 것 없이 네 근본을 보아라, 밖으로 떠달릴 것 없이 너의 참자기 근본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
 내가 근본을 의심한다고 해서 진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지요. 법이 그러하고 진리가 그러하니 믿는다면 믿고 어떻게 믿는게 진짜냐 하면 자기 근본을 믿어야 하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요.
 만약에 밖으로 대상을 찾고 그걸 믿는다면 꼼짝없이 노예 노릇을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언제 그 많은 바깥계상을 다 알 수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일찍이 문자에도 엄매이지 말고 물질에도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을 네 마음 안으로 돌리라고 하신 것도 그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랬음에도 그 뜻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자기가 제 몸 하나 제대로 끌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인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까?

“진리를 떠나서 무엇을 따로 믿겠습니까”
 “만법은 자기로부터... 밖으로 찾지 말길”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절마다 부처는 다 한 부처지만 그 절에 사람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설법을 하더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면 설법이 아니지요.
 자기가 목 마르면 그냥 물 떠먹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누구라도 다 말을 할 줄 아는데 지어서 할 건 뭐고 구상해서 할 건 뭐니까? 목이 마르는데 무엇을 먹을까, 어떤 그릇으로 떠 먹을까 그런 것 따지지 않듯이 그냥 한마디라도 법답게 하는 것이지요.
 말 한마디가 그대로 법인데 한테에 떨어뜨릴 수 없느냐? 백마디 천마디 죽은 소리보다는 제소리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니 어딜 믿고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자기를 믿고 제 근원으로, 마음 안으로 돌릴때 그야말로 한마디 한 사이 없이 되고 길없는 길을 밟은 발로 내 밟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죽은 불교가 아니라 생동력있게 살아있는 불교입니다. 활나활나 나무며 화해서 돌아가는 일체 만법이 곧 불교이니 그대로 살아있는 법이고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자동적인 공동공법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일체가 공생하고 공용하고 공식하며 돌아가는 것이지요. 저 태양의 근본이나 천지의 근본이 내 근본과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세워 놓아도 저 미생물이나 초목이나 동물이 다

나 아닌게 없고 그래서 끊어 죽을 일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그 도리를 우습게 알고 그러다보면 이젠 꼼짝없이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손은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뭘 집으려해도 먼데 있으면 집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열린다면 만법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란 말이지요. 그래서 부처님 도리를 공부하는 것은 자유인이 되자는 공부입니다.
 노예공부가 아니라 대자유인 공부입니다.
 하물며 자신을 얻어내는 그런 일에 매달리겠습니까?
 흔히들 무슨 백일기도를 붙인다, 인등을 몇달며칠 밝힌다 하는데 그레아만 잘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8면으로 계속

생활 속의 불교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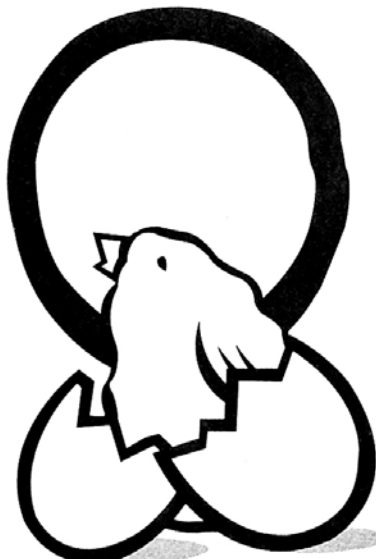
다람쥐 쳃바퀴 돌리기 같은 삶을 즐겨워 한다면...

“살아 생전에 아귀 축생의 마음을 자주 냈으면 죽어서도 아귀 축생계를 면치 못할 것이고, 살아 생전에 천상에 오래 있었던 이는 죽어서도 극락에 갈 것이다. 그것은 누가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짓는대로 엄연한 법칙에 따라 그리되는 것뿐이다.
 상천·중천·하천 세계가 체로 거르듯이 돌아가고 있으니 천당 지옥이 따로 없다. 인간이 하천으로 떨어져 두더지 집에 들어간 게 지옥이다. 그러므로 살아서 천상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간까지 올라온 것도 천 년의 공은 닦아서 온 것이다. 사람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된 후에도 살던 습을 못놓고, 항상 자기 자신 자기 것만 아니까 고가 끊임 새가 없다.
 또 그렇게 살다가 진화해서 승진하기는 커녕 끝간 데를 모를만큼 세세생생에 쳃바퀴 돌아가듯 빙빙 돌거나 아니면 좌천하여 짐승의 허물을 뒤집어 쓰게 되면 먹고 먹히는 처절한 삶을 살게 되므로 한생각 바르게 해 볼 겨를도 없게 되어 수억겁을 가도 그 허물을 벗기가 어려워진다.”

맹자(孟子)의 모친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집을 옮겼다. 처음 저자거리 인근으로 옮겨 살았는데 어린 맹자가 어느새 물건을 사고 파는 흥내놀이로 열중하는 것을 보고 한적한 산 밑으로 이사를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이 죽어 장사지내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것이다.
 맹모는 이에 놀라서 이번엔 서당 근처로 집을 옮겼다. 그로부터 맹자는 매일 글 읽는 흥내를 내더라는 것이다.
 환경은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은 삶의 내용을 좌우한다. 가령 같은 사람은 오로지 풀려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고 풀려난 사람은 한 끼의 식사를 갈구할 것이다. 사람이 목마른 사람은 생각이 지나쳐 상사병에 이르기 도 한다.

현대의 삶은 너무 복잡다단하다. 알아 할 것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거기에 얽매어 살 것이다. 평생동안 그로부터 자유로운 시간,



바깥 경계에 그달리지 않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갖기란 쉽지가 않다. 자나 깨나 그저 재워때문에, 생활때문에, 인연에 얽히고 떼어내려 하면 허상에 얽매어서 세월을 보내게 된다. 마치 쳃바퀴를 돌리는 다람쥐를 닮았다.

다람쥐는 아무리 달라도 쳃바퀴속에 있다. 그러나 다람쥐는 그걸 모르거나 혹은 재미를 느껴서인지 그 일을 계속 한다. 우리들이 평생토록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로 씨름하면서 사는 게 꼭 다람쥐를 닮은 것 같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삶의 내용도 바뀌지 않는다. 평생 재화를 쫓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모든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쏟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보람으로 알며 인생의 성공을 말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재워의 노예로서 산 것이 자기의 삶을 산 것은 아니다. 삶의 내용을 좌우한 것은 재워였지 자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한번 먹은 생각은 자기가 바꾸고 지우지 않는 이상 없지 않는다고 한다. 오랜 세월을 두고

쌓고 쌓은 생각이 체공체공 의식의 창고에 갇혀 있다가 내 삶의 진로와 내용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다음 순간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듯이 쌓이고 쌓인 생각은 미래의, 내생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독사같은 마음을 냈으면 언젠가는 독사같은 삶의 순간이 내게 찾아 오게 되어 있다고 한다. 반면 보살의 마음으로 살면 매일의 삶이 보살같이 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에 얽매어서 주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 다닌다면 누구라도 다람쥐 쳃바퀴같은 삶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맹모삼천(孟母三遷)을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말씀을 많이 듣고 따라 배우는 것이다. 윤회를 믿진 안믿진 간에 적어도 다람쥐 쳃바퀴 같은 삶을 즐겨서는 안된다.
 마땅히 진화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협찬: 이인제